

최종수와 기상호는 결혼을하기로 했다.

아니, 물론 진짜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최종수가 어느 날 콘소메맛 꼬북칩을 집어먹으며 영화에 집중하고 있던 기상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하는 건 어때. 기상호는 무슨 프러포즈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물었지만, 최종수는 이건 프러포즈가 아니라고 잡아떼며, 결혼반지가 있어야 프러포즈라고 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기상호라고 딱히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더니, 전부 다 계획이 있는 최종수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폴악셀로 결혼 준비를 해주더라. 어떻게 얼렁뚱땅 상견례도 하고 (기상호는 게이인 것도 겨우 밝혔는데 상견례까지 하자니 기가 죽 빠리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신혼집은... 그냥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고, 지인들 몇 명만 부를 작은 예식장도 예약하고. 이제 남은 건 그놈의 프러포즈에 필요한 결혼반지 뿐이었다. 결혼반지만 맞추면 결혼 준비는 전부 끝이었다. 그래서 기상호는 그냥 가장 가까운 주말을 고집해서 날을 잡았다.

여기까지 최종수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맞춰두었던 알람은 휴대폰이 방전된 탓에 제때 듣지 못했고,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허겁지겁 기상호를 깨워 외출 준비를 했지만, 옷에서는 어젯밤 잘못 건조한 타인지 유난히 더 퀘퀘한 냄새가 나더렸다. 씨X...

옷장을 쥐잡듯이 뒤진 후에야 적어도 사람처럼 보이는 꼬라지가 되어 현관문 밖을 나설 수 있었는데, 그저께 비싼 돈을 주고 세차한 차를 타고 가길 5분.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몇 방울씩 굵게 떨어지더니 이윽고 열대 소나기와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기상호가 뒤늦게 버튼을 꾹 눌러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와, 오늘 진짜 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바람을 타서 들어온 빗물에 쫄딱 젖은 최종수가 핸들을 붙잡고 답했다. 설마 더 하겠냐?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둘에게는 차라리 그것뿐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준인 일들이 잔뜩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호등은 제 차 앞에서만 빨간불로 변했으며, 서울 교통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도 차가 막혀 예상했던 시간보다 2시간이나 오버된 상태로 백화점에 도착했다. (와중에 늦잠자서 따로 아침을 먹지 못해, 가는 내내 배 속의 거지새끼들이 꼬르륵하고 울어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백화점에 도착해서는 너무 굶주린 나머지 본 목적을 뒤로하고 '일단 밥부터 먹을까' 제안하며 식당이 있는 푸드코트로 가보니 웬걸, 가족 단위의 손님이 너무 많다. 세상의 온갖 불행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 같지 않은가? 기상호가 말했다.

...햄, 전 괜찮으니까 그냥 결혼반지부터 고르러 갑시다.

그 시점 즈음의 최종수는 이미 뉘이 나가 있었다.

---

결혼, 인간 사회에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만드는 수단이자 약속.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 이걸 15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고층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던 날의 일이었다. 고작 13살밖에 되지 않았던 꼬맹이 최종수에게, 아버지는 결혼상대의 중요성에 대해 일장연설 -중간마다 제 부인을 만난 자신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도 간간히 끼워 넣었다- 을 하던 도중 이렇게 말했다.

종수야, 결혼 상대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 같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람과 사람을 가장 끈끈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신뢰거든. 중요한 분기점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

그 말에 어머니는 이 사람이 또 시작이네 같은 말을 하며 하하하 웃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스테이크 하나조차 한입에 넣지 못하는 어린 최종수에게 최세종이 과연 뭘 그리 진지하게 말했을까 싶지만 아무튼. 신뢰, 신뢰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직은 부모님을 제외하곤 그런 관계를 쌓아본 적이 없으니 어려운 말이었지만, 일단 부모님 말씀이라면 헌법처럼 따르던 편이던 (이게 신뢰라는 것이다) 최종수는 그날 이후부터 옛날부터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땐 자신이 믿을만한 인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최종수의 중학교 시절 친구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너라면 아이유랑 결혼할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진짜 재미없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거야. 불쌍한 놈,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그 말에 최종수는 외모만 보고 결혼할 것인지 말 건지 결정하는 네가 더 불쌍하단 생각부터 들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 햄? 왜,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평생 그런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지금 최종수의 애인인 기상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종수의 기준에선 그다지 신뢰가 갈 만한 인물인가? 그건 또 아니었다. 주얼리샵을 찾아 엘리베이터 옆 백화점의 내부 구조도를 뺀히 들여다보고 있는 기상호를 최종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뺀히 쳐다보았다.

사실 이렇게 된 건 전부 기상호 네 탓이 컸다. 아침 알람을 맞춰두었던 휴대폰이 방전된 건 밤새 기상호가 유튜브 숏츠를 보다가 기절했기 때문이었고, 옷에서 유난히 더 퀘퀘한 냄새가 나던 건

기상호가 자연 바람에 말리겠답시고 건조기에 돌리지 않고 이 장마철에 빨래 건조대에다가 빨래를 널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하늘에서 비가 오고 교통상황이 나쁘고 손님이 많았던 건 오롯이 우리 두 명분의 불행이었지만, 사실 이것도 귀찮았던 기상호가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터라 묘한 연관이 있긴 했다. 그래도 반쯤 강제로 기상호를 끌고나온 건 본인이니 화는 안 냈다지만.

아무튼 평탄하고 무난할 예정이었던 최종수의 인생에서 기상호라는 인물은 피할 수도 있는 불행을 굳이 열심히 물어다 주는 토템 같은 거란 건데. 그럼에도 왜 결혼을 결정했느냐고? 그건...

"햄, 종수 햄! 제 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남은 디자인이 전부 저것뿐이라는데..."

그것도 잠시. 기상호가 제 특기를 살려 회상에 빠져있던 최종수를 현실로 이끌어내자, 최종수 눈앞에 펼쳐진 건 명품 주얼리샵의 처참한 디자인 리스트였다.

안 그래도 결혼식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제작 가능한 디자인만 확인해보니 하나같이 진주가 눈갈사탕만큼 커다랗게 박혀있다던가, 엄지손톱-최종수 기준-만한 사파이어가 고풍스럽게 달린 반지, 옥 반지, 그 외 아무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게이 커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들뿐이었다. 직원도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덧붙이기도 했고, 아무리 보는 눈이 없는 최종수와 기상호에게도 이건 좀 아닌가 싶었는지... 잠깐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둘러댄 뒤, 둘은 직원을 피해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100초 토론장을 벌였다.

"아니 뭘, 늙은이들도 아니고 저딴 걸 누가 꺼. 다른 곳은?"

"어,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웨딩 시즌이라 세련된 건 예약이 전부 찻대요."

"...반지같은 건 그냥 두들기면 나오는 거 아냐? 뭘 예약이 있어."

"어, 음, 글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기상호가 뒤통수를 긁적이자 최종수도 앞머리를 긁적였다. 둘 다 평생 농구만 하고 살았지 이런 건 하나도 몰랐다. 차라리 이런 걸 골라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나 기상호네 누나분이라도 같이 왔어야 맞았나... ..

결국 최종수와 기상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둘이 머리를 맞대봤자 그냥 멍청한 대화만 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과 '그래도 이딴 걸 결혼반지로는 할 수 없다' 라는 100초 토론의 결과를 낸 뒤, 고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전부 소진한 듯이 뺏가죽이 등에 불을 만큼 굵주린 배를 부여잡고 백화점 내의 벤치에서 멍청히 있다가, 그나마 운 좋게 자리가 빈 일식집에서 좀 차게 식은 초밥을 집어먹으며 불만족스러운 식사를 끝냈다.

다시는 이 백화점 안 온다. 최종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서점 구경에 푹 빠져있던 기상호를 데리고 백화점을 빠져나와 서울에 있는 모든 금은방과 주얼리샵을 검색했다. 이제 이건 일종의 승부욕이었다. 무조건, 오늘, 결혼반지를 고르고 말겠다고. 내가 오늘 이 불행들을 전부 이겨내고 2주 안으로 결혼반지를 손에 끼우고 말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최종수에게 가혹한 편이었다.

"2주 안에 가능한 건 이 디자인 뿐이세요."

"죄송합니다, 반지는 최소 5주는 걸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하지만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그냥 개고생이라고 해야 할지. 주말에는 대부분의 금은방과 주얼리샵이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가게들은 아까의 백화점과 똑같은 상황만 이어져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늦잠을 잤어도 나올 때는 아침이었는데, 이제 바깥의 풍경은 어둑어둑한 밤의 색이 이어졌다. 그래도 속도를 내서 돌아다닌 탓에 남은 가게는 단 하나였지만, 이 정도까지 캔슬을 먹으면 아무리 승부욕에 죽고 사는 운동선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칠 수밖에 없었다. 가봤자 의미가 있긴 한가? 그 남은 가게도 디자인이 구린 것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데... 결국 불행의 끝에 도달한 최종수는 말없이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 모습을 본 기상호가 입을 열었다.

"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야,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있던 커플링 끼고 다니면 된다.' 같은 소리 할 거면 조용히 해."

"넵."

독심술사 최종수의 말에 기상호는 입을 바로 다물었다. 귀신같네.

그렇게 조용히 창 밖과 핸들에 머리를 박은 최종수를 번갈아보던 기상호는 입술을 우물거리며 시트에 등을 기댔다. 사실 오늘 내내 최종수의 고집에 따라다니던 기상호는, 줄곧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그리 열심히예요? 햄은. 기상호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굳이 꺼내지 않던 말들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햄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 결혼식도 그냥 구색 맞추기 용이고, 어차피 한국에서는 진짜 결혼도 못 하는데. 저는 커플링이든 결혼반지든 상관없고,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굳이 그렇게 결혼에 의미를 두는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

나만 이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허나 이대로 말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을 뻔히 예지한 기상호는 괜히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그저 남은 하나를 얼른 둘러본 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굳이 최중수가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진, 분명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 저번에 나한테 왜 굳이 결혼식까지 하고 싶으냐고 물었지."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기억 안 난다고 대충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왜요?"

"나는 진짜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뭐 하나 다를 거 없이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 네?"

기상호는 시트에 기대고 있던 몸을 천천히 들어 올려 최종수의 방향을 향해 상체를 제대로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던 최종수는, 기상호 쪽을 향해 슬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정작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뜬 기상호를 쳐다보지는 않고 시선은 여전히 핸들에 고정된 채였다.

"그냥... 난 너한테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이딴 개고생 별로인데, 그래도... 다 쓸모없는 일이더라도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 보여주고 싶었고, 나 아니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결혼식 준비해주고 싶었다고. ...방금 다 망하긴 했는데, 됐냐?"

"...푸핫."

"야, 뭐가 그렇게 웃겨서 쳐 웃는데? 넌 남이 진지하게 말하는 게 웃기냐?"

"그냥 이런 사람은 처음 봐가 신기해서 웃어봤어요, 저는 평생 결혼은 못 하고 살겠거니 생각했는데..."

"야, 네가 결혼을 왜 못해. 내가 있는데."

"아니, 쯔. 햄은 고딩 때 만났잖아요. 전 중딩 때부터 제가 게이인 거 알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쯔 어안이 병병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준비도 그렇고, 오늘 결혼반지 찾겠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도요."

"...그래서, 하기 싫었어?"

"또 너무 멀리 나가시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냥 의미란 건 찾으면 다 나오는 거구나 싶어서요.

최종수와 시선을 마주친 기상호가 킁킁 웃다가 말을 이었다. 햄 말대로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진짜 쯔수 햄 아니면 이런 경험 해볼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기상호의 말을 들은 최종수가 핸들에서 천천히 머리를 뺐다. 어두한 밤, 불조차 켜지 않은 자동차 내부는 캄캄하고 어두워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행동과 주변 빛에 반사된 눈동자의 눈빛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기상호는 최종수가 새까만 어둠 속에서 말없이 오로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수의 표정은 분명 나쁜 건 아니겠거니 말을 이었다. 아, 진짜. 이 말을 내가 먼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방금 생각해봤는데, 저는 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반지는 없지만 결혼해주세요."

"아, 씬. 하하. 이 쯔 부끄럽긴 하네... 반지 있는 프러포즈는 그냥 햄이 하시고요, 저는 반지 없는 프러포즈 할라고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나쯔은 해줘야 특별할 것 같아서요. 햄? 제가 용기를 냈는데 뭔가 말이라도..."

기상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부끄러움을 덮으려던 것도 잠시,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 나오더니 최종수는 그대로 기상호의 멱살을 잡아 제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후는 뭐 뻘한 전개였다. 최종수는 커다란 손으로 기상호의 뒤통수와 뺨을 감싸고는 그 어떤 대답도 없이 입술을 맞추었다. 말랑한 혀가 기상호의 입술을 핥다가도 꼭 누르고, 살짝 다물려져 있던 입술을 비집고 최종수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키스에 익숙한 듯이 당황하지 않고 눈을 천천히 감던 기상호의 시선에서 마지막으로 맺힌 건, 어둠 속에서도 얼굴색과 귤가의 색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햄도 부끄러워서 이러는 갑다. 고요한 차 안에서 체액소리만 울리기를 잠시, 최종수는 입이 천천히 떨어지는 와중에도 뒤통수의 손은 놓지 않아 가볍게 이마를 맞댄 채로 대답했다.

"다음에는 결혼반지 끼워주는 것까지 그냥 니가 해."

"그럼 아직 한 곳 더 남았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고를까요?"

"... ..됐어. 지금 뭐 고를 기분 아니야, 그냥 집이나 가자."

진짜로 뭐 고를 기분 아니어서 집 가는 거 맞죠? 닥쳐, 미친 새끼야. 최종수는 허벅지에 손대려는 기상호의 손을 빠르게 짹 쳐냈다. 이후 다시 차에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네온사인들과 거리의 불빛들이 창 밖으로 스쳐지나간다. 그리고 최종수는 생각했다. 혹시 지금까지 있던 거대한 불행은 방금 이 말을 듣기 위해서였나? 오늘 겪었던 모든 불행을 다시 한 번 겪더라도, ...지금이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전부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다고 해야하나. 어쩌면 물어다주는 불행보다 당장의 행복이 더 커서 크게 불행으로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힐끗, 최종수는 기상호를 향해 시선을 가볍게 한번 돌렸다.

기상호는 저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제서야 최종수는 아빠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까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싶었는가 까지도. ...난 너도 이 결혼을, 나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다.

옆에 앉아있던 기상호는 최종수와 눈이 마주치자 문가를 더듬은 뒤 오픈 버튼을 눌러 창문을 열었고, 금방 차 안에 차 있던 열기를 밤 공기의 시원함으로 밀어냈다. 햄, 노래 틀어도 돼요? 어, 근데 곧 도착할 거니까 한 곡만 틀어. 그럼 우리랑 딱 어울리는 노래 하나만 틀게요. 그렇게 집에 가는 길, 최종수와 기상호는 달콤한 사랑 가사가 담긴 가요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과의 결혼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